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도심공중보행로-오픈 플랫폼

Re-Structuring Sewoonsangga Citywalk-Open Platform



박 열 Park, Yeol
회지편집위원, 광운대 건축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ypark@kw.ac.kr

도시기반시설의 재생

현재의 도시모습은 도시의 생성과 동시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들을 축적하며 변형되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도시가 사라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도시의 변천에서 나타나 이러한 변형의 과정들에 기인한 것이다.

도시의 형태와 조직을 구성하는 과거의 공공기반시설들과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역사를 축적하는 매개물로서 자체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preservation)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것들은 현재 도시와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도시 내 생명력을 잃은 채 방치되어져 있다.

최근 서울시와 지자체에서는 구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재생(revitalization) 방식으로 전환되어 실행하고 있다. 이는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물인 하드웨어를 보완하여 현대 도시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담아내어 과거의 공공기반시설들과 건축물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구 도심지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의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진다. 약 1km에 이르는 세운상가군은 서울의 남북을 가르는 최초의 주상복합건축물임과 동시에 근대도시건축의 기념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운상가군은 도심지 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도시의 큰 골격을 형성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번 세운상가군 국제공모에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도태된 도시기반시설의 재생방법을 과거 역사적 교훈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그림 1, 2 참조).



그림 1. 세운상가군 종합배치도



그림 2. 조감도

설계개요

사업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공공공간 국제지명

현상설계 (삼풍상가-남산순환로 구간)

발주처: 서울특별시

설계자: Modostudio + 박열(광운대학교)

협력사: Sarti Engineering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일대

대지면적: 42,100m²

구조: 철골조

폰테베키오(Pontevecchio)와 세운상가

이탈리아 피렌체의 폰테베키오는 도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사례 중의 하나이다. 중세시대의 단순한 교량에서 시작된 폰테베키오는 주변 환경의 많은 변화들에 영향을 받아 변형되어져 왔다. 그리고 지금의 폰테베키오는 물리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시적 기능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로서 서울은 도시 내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 공공기반시설 시스템의 하나인 세운상가 도시 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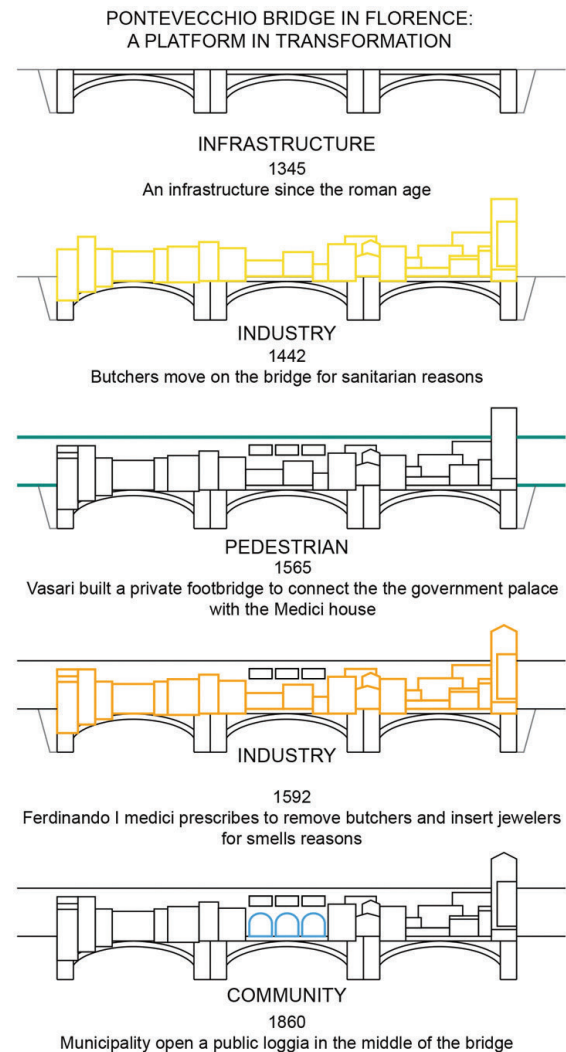


그림 3. 폰테베키오의 시대별 변형

현재 도시적 변화의 과정이 급속히 진행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공공기반시설 시스템의 질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이를 통한 주변 환경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것에 기반을 둔다.

세운상가군의 도시 길은 새로운 변화들에 적응하고 도심지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유연한 기반시설이 되어져야 하며, 시간대별 다른 도시문화의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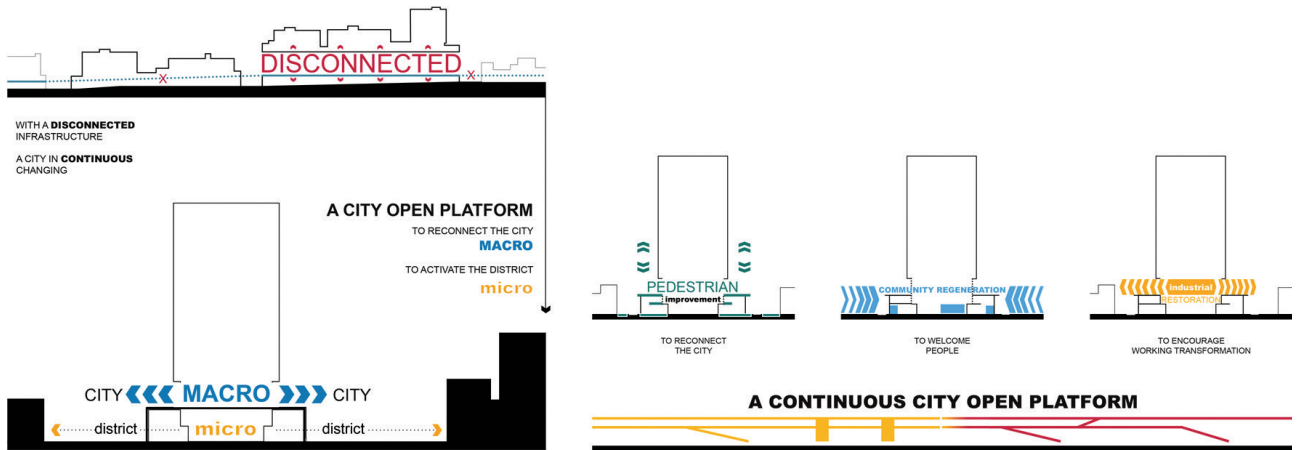


그림 4. 개념도

도시의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세운상가 단지의 도시 길인 오픈 플랫폼은 서울 중심부에 유연한 기반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하였으며, 또한 현재만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제안된 오픈 플랫폼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스케일에서 도시와 소통할 수 있는 연속적인 도시공용공간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도시적 스케일로, 종묘부터 남산까지의 도시의 여러 지구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연속적인 통로로서의 플랫폼으로 긴 중심보

행로이다.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 스케일 측면에서의 오픈 플랫폼이다. 이것은 통로를 따라 만나는 다른 지구들의 변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면서 물리적, 개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나게 되는 다른 영역들의 특성에 따라 대응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와 소규모 접근법을 통한 오픈 플랫폼은 그 지역의 사회 재생, 산업 복원 그리고 이동성 및 보행로 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도심지구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활성화 한다(그림 4, 5 참조).

서울의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 될 오픈 플랫폼은 도시가 변환에 따라 진화되는 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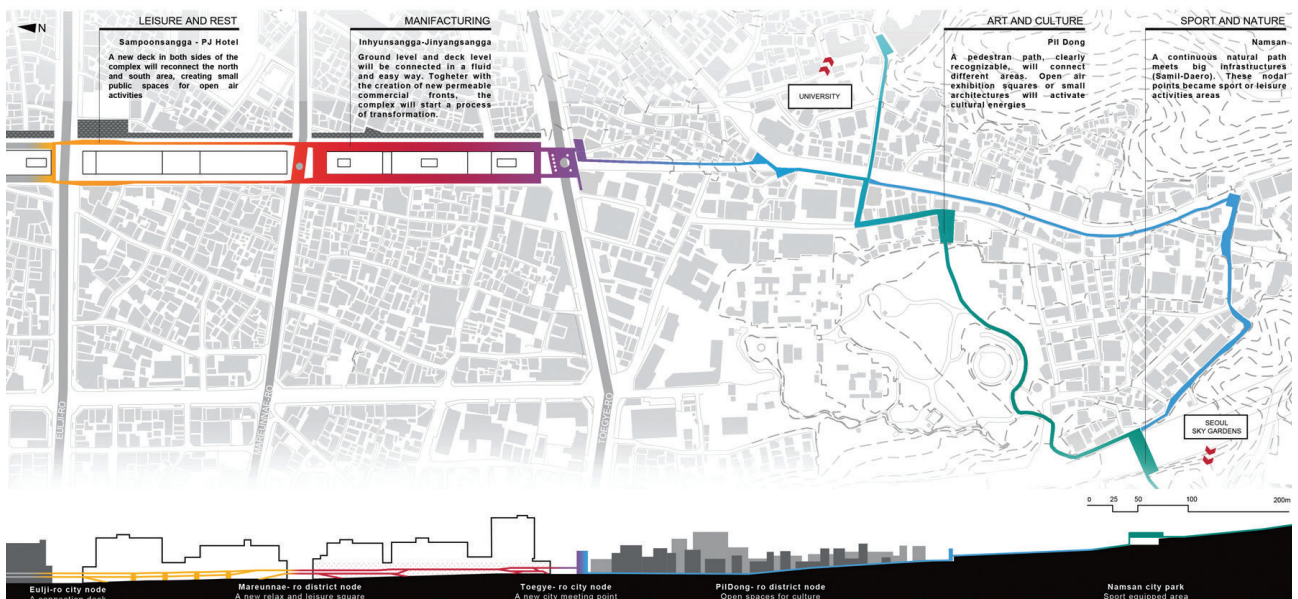


그림 5. 2단계 부분배치도(삼풍상가~남부순환로)



그림 6. 을지로 상부 보행교



그림 7. 마른내로 공중보행광장



그림 8. 퇴계로 공중보행광장

동시에 모든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특성들과 같이 도시의 변화를 축적하게 된다.

서울은 오픈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은 자랑스럽게 전통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제안은 동시대적 해결책으로서 사회적·역사적 전통들과 생활방식들을 상호 소통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 길의 재구성은 지역적 재료를 천 년의 건축 전통기법의 현대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오픈 플랫폼은 보행성과 이동성의 개선, 커뮤니티의 재생, 그리고 도시산업의 복원을 통한 지역 변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와 대화할 것이다.

보행공간으로서 오픈 플랫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를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를 통한 보행공간이 자동차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자 한다. 도시민의 삶의 질은 적은 도시 소음, 인식이 쉬운 공간, 보행의 안전함, 그리고 어메니티를 위한 충분한 야외 공공공간 등을 통해 향상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세운상가군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공간의 증대를 우선시한 이유이다.

서울의 남북을 가로지르면서 서로 상이한 특성의 지구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속적인 보행로는 바로 미래의 도시 변화에 기반을 둔 확장 가능하고 가변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이다.

보행로의 개선은 세운상가 데크와 마스터 플랜 1단계의 데크 및 필동을 연결한 일련의 보행자 교량과 육교, 그리고 이를 통한 용이한 접근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통로들은 지상의 새로운 보행로와 쉽게 연결되며, 특히 인현상가-진양상가 영역에서의 데크레벨과 지상 간 연결에 있어 중간층을 통한 부드럽고 유연한 연결 보행로는 다양한 야외 활동들을 위한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그림 6~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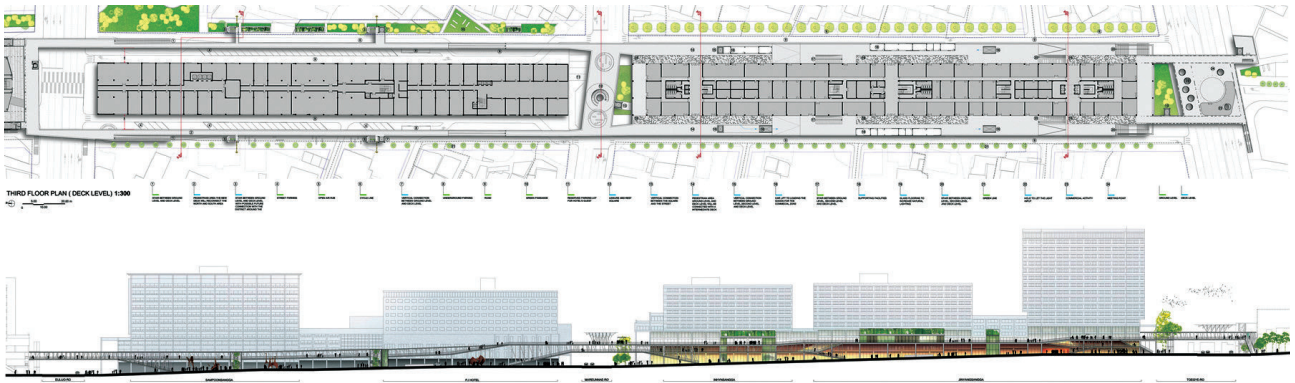


그림 9. 평면도 및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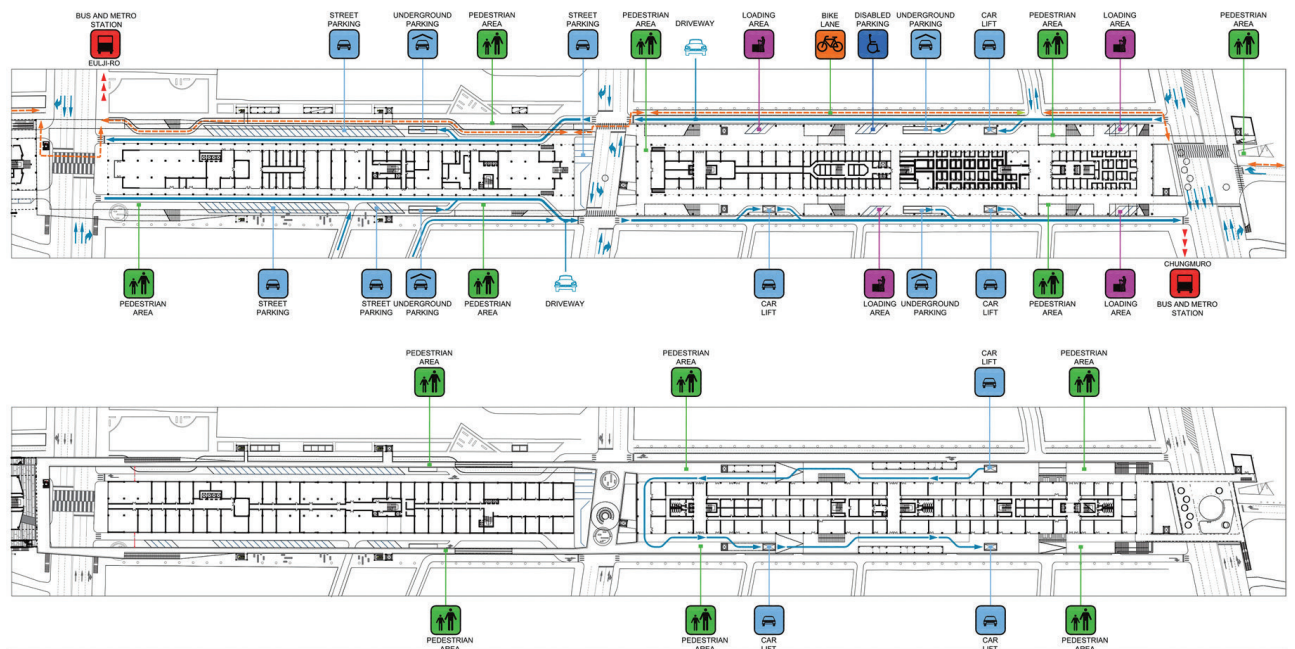


그림 10. 동선체계도



그림 11. 세운상가군 지상층 아케이드



그림 12. 3층부 보행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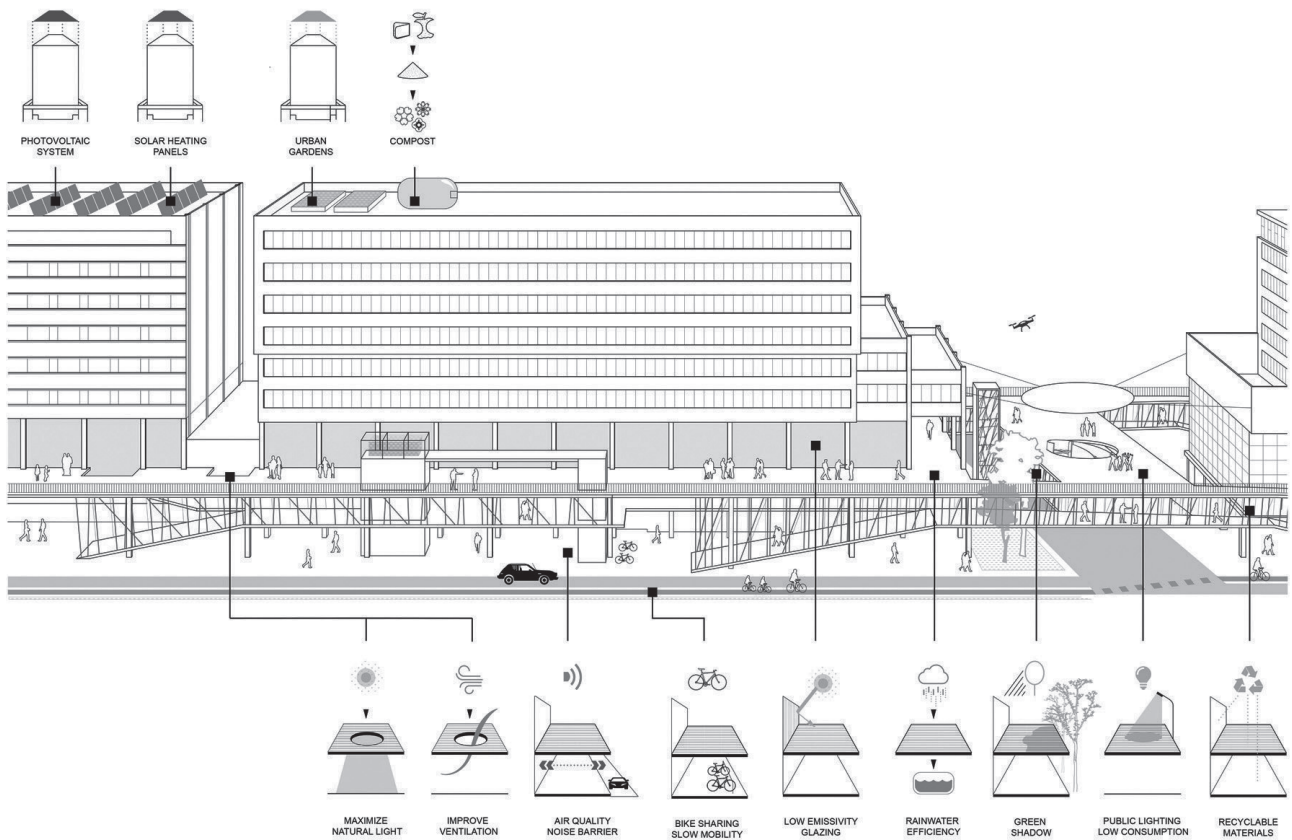


그림 13.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

지속가능성을 위한 오픈 플랫폼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는 공공인프라스트럭처로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복잡하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최대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생가능한 재료의 사용, 보행로 개선, 자연환기, 빗물 사용, 자연채광의 최대화 등 공공공간의 어매니티의 지속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현실에 기반을 둔 복합전략 전략요소들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형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안된 접근법은 휴먼스케일을 통한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공공건축으로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질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남겨줄 수 있길 바라며, 또한 미래의 천연 자원을 보존을 위한 생태학적 발자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안

하는 몇 개의 디자인 단계에 적용된 방법들은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의 성장을 역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자들이 공공공간 사용에 있어 도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그림 13 참조).¹⁾